

# 전남 80세 여성도 행복바우처 받는다

## 도, 달라지는 농업 분야 제도·시책

전남도가 올해부터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을 기존 75세에서 80세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여성농업인 1만6000여명이 행복바우처를 추가로 받게 돼 모두 10만75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21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와 공공형 계절근로자 농작업 허용 범위 확대 등 올해 달라지는 농업 분야 제도와 시책을 안내하고,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지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의료시설 기반이 부족한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농촌 왕진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사·군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양·한방, 검진, 질병관리 등 보건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공공형 운영 사업장

## 1만6천명 늘어 10만7500명 혜택 양·한방·검진 무료 ‘농촌 왕진버스’ 공공형 계절근로자 작업범위 개선

(APC 등)에서 농산물 선별, 세척·포장 등으로 업무 허용범위가 확대돼 장마 등 기상 악화로 농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속적으로 다른 업무를 하면서 월급을 받도록 개선했다. 4촌 이내 결혼이민자 초청은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10명 이내 고용으로 축소된다.

청년·후계농 육성자금에 농외소득 3700만 원을 초과하면 용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폐지했다. 대상자 선정은 연초 1회 선정에서 연 2회로 개선했다. 친환경농업직불금 논의 유가·무농약 지

원단가는 ha당 25만원씩 인상해 각각 유기는 95만원, 무농약은 75만원으로 올랐다. 농·채소·과수 품목별 유가지속 지원단가는 12만~14만원을 인상해 논은 35만원에서 57만원, 채소는 65만원에서 78만원, 과수는 70만원에서 84만원으로 올랐다.

전략작물 직불금 밑의 지원단가는 ha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사료는 4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밖에 중소농 스마트팜 지원단가도 개소당 3억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확대되며 자부담 비율은 40%에서 25%로 줄여 농업인 부담을 완화했다.

가족분노 퇴비사 시설 보강, 장비 구입 비용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분노 퇴비 부속 축진 지원단가를 개소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000만원 상향했으며, 축산농가 방역시설 지원에 연무소독기, CCTV 등 일부 항목을 확대한다. 이

에 가금농장 CCTV 관리의무 위반, 축산농가 검사 증명서 없이 이동 등 방역기준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기준이 기존보다 700만원 인상돼 1000만원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영유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48만 원/1인)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마케팅 지원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지원 확대 ▲원예작물 해충포획기 보급 ▲가축 폭염 피해 예방시설 지원 ▲한우농가 삶의 질 향상 시범 지원 등을 추진한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새로 시행하거나 확대하는 시책이 농업인 삶에 실질적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힘쓰겠다”며 “농업인께서도 이번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필요한 정책을 잘 활용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받을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생활하수에도 독감 바이러스 지금이라도 예방접종하세요

### 전남보건환경연 “지속 예상”

최근 광주·전남에서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내 생활하수에서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농도가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 50주차(12월 8~14일) 하수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처음 검출된 이후 최근 2주차(1월 3~11일)까지 바이러스 농도가 계속 증가세를 보여 독감 유행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측됐다.

하수 모니터링은 보건환경연구원 질병관리청과 함께 생활하수에 섞인 감염병 바이러스 농도를 분석해 지역사회 감염병 유행 추이를 예측하고, 사전에 대응하는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의 일환이다.

하수 감시를 통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독감) 외에 지속해서 출현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해외에서 유행하는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RSV),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HMPV),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등 다양한 감염병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용자 도, 24일까지 신청 연장

전남도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70억원 규모의 2025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신청 기간을 24일까지 2주간 연장해 접수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육성기금은 생산·유통,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 저리로 용자 지원한다.

용자 신청 대상은 전남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법인, 생산자 단체와 유통업체다. 용자 한도는 개인은 1억원, 법인은 5억원, 유통업체는 10억원이다.

지원 자금은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뉜다. 운영자금은 친환경 배·고구마 등 원료 구입, 버섯 종균 구입, 포장디자인이나 포장재 제작, 판매장 입차료 등을 지원한다. 시설자금은 육묘장 신축, 저온저장고 설치, 가공·유통시설 신축, 생산시설 신축이나 증·개축 사업비 등을 지원한다.

상환조건은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시설자금 2년 거치 6년 균분 상환이며, 소득 발생이 늦은 과수는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용자를 바라는 친환경농업인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는 서류 등 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자와 지원자금을 2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설 연휴 어디갈까? 남도로!

## 전남관광재단, 강진 가우도·광양 구봉산 등 6곳 추천

전남관광재단이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떠날 수 있는 전남 관광지 강진 가우도·광양 구봉산·고흥 금산도·해남 산이정원·함평 돌머리 해수욕장·완도 청산도 등 6곳을 추천했다.

강진 가우도는 전남의 ‘가고싶은 섬’으로 선정된 섬으로,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생태탐방로 ‘함께해갈’은 산과 바다를 동시에 감상하며 걷기 좋은 트레킹 코스이다. 출렁다리로 섬에 들어가면, 모노레일을 타고 가우도의 정상에 올라 청자타워에서 강진만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다. 섬을 떠날 때에는 짙트랙을 타고 하늘을 나는 듯한 짜릿한 스릴을 만끽할 수 있어 가족 여행지로 제격이다. 가우도를 둘러본 후에는 강진의 대표 보양 음식인 강진회충탕을 먹어야 한다.

고흥 거금도 금산은 해안도로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하다. 다도해 비경을 따라 펼쳐지는 푸른 바다는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감동적인 풍경을 선사한다. 드라이브를 즐긴 후에는 고흥의 겨울철 대표 보양식인 매생이로 만든 매생이국을 추천한다. 향

긋한 바다내음과 함께 건강을 챙기기에 완벽한 별미이다.

광양 구봉산 전망대는 해발 473m에 위치한 명소로, 순천, 여수, 하동, 남해까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특히 일출과 야경이 아름다워, 탁 트인 풍경 속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기에 완벽한 장소이다. 광양은 참살이를 피워 구리 석쇠에 구워낸 광양불고기 매우 유명하다.

해남 산이정원은 ‘산이 정원이 된다’라는 뜻을 가진 전남 최초의 정원형 식물원으로 광활한 수목원과 산책로 외에도 미술관, 카페, 놀이시설 등이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온 가족이 함께 힐링을 경험하기에 좋은 곳이다. 산이 정원을 구경한 후에는 해남의 명물 삼치회를 맛보는 것을 추천한다.

함평 돌머리 해수욕장은 넓은 소나무 숲과 함께 펼쳐지는 백사장이 아름다워 해 질 무렵의 낙조가 특히 환상적이다. 바로 앞에는 해수점치유센터가



전남관광재단이 설 연휴 온 가족이 함께 떠날 수 있는 전남 관광지 강진 가우도·광양 구봉산·고흥 금산도·해남 산이정원·함평 돌머리 해수욕장·완도 청산도 등 6곳을 추천했다.

있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체험도 추천한다. 해수점을 즐긴 후에는 함평의 대표적인 명물인 신선한 한우를 활용한 육회비빔밥을 꼭 맛보아야 한다.

완도에서 배로 50분 거리에 위치한 청산도는 자연경관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섬이다. 2007년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선정되었으며, 세계 중요 농업 유산으로 지정된 구들장논과 독특한

한 돌담길로 유명하다. 또한, 2024년 ‘한국 관광의 별’ 친환경 콘텐츠 분야에서 선정되며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 인정받았다. 청산도 슬로길은 42.195km에 걸쳐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명소이다. 청산도를 구경하고 완도의 자랑인 싱싱한 전복으로 만든 전복떡볶이를 추천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도, 설 맞아 축산물 원산지 표시 등 집중단속

전남도가 축산물 수요량이 급증하는 설을 맞아 안전하고 신뢰받는 축산물 유통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판매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의 축산물 이력제 의무 이행 업체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전남도와 사·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자체 단속과 합동단속을 병행한 현장 점검으로 이뤄진다.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의 이력관리 및 등급·원산지 표시 등을 점검,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하도록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효율적 점검을 위해 위반 개인성이 높은 업소(둔갑판매 등)에 대해서는 DNA동일성 검

사 등을 함께 추진한다. 또 판매업소 이력번호 표시,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발급 여부, 이력관리시스템 기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김성진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설을 맞아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가 국내산 축산물을 믿고 구입하도록 영업자 스스로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 도, 2월 5일까지 이동상담소 등 4곳

전남도가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2025년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사업’ 수행기관 4개소를 모집한다.

특히 올해는 한국어·정보화 교육 등 역량 강화 교육,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운영, 문화체육행사, 공동체 운영 지원 등 다양한 사업 유형을 분야별로 구분해 지원할 예정이다.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사업 수행기관은 전남 소재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지역 내

외국인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한다. 신청은 2월 5일까지 전남도 누리집 공고를 참고해 신청서 등을 작성,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남도는 이용 접근성, 사업 추진 실적, 교육장·상담실 등 시설 보유 현황을 종합 심사해 수행 기관을 확정, 3월에도 대표 누리집에 게재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개소당 2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